

한국산 진단키트 전세계 러브콜 쇄도...3월 수출 117% ↑

손세정제·세안용품 등 소비재 수출 모두 증가

인도적 지원 요청 31개국·수출 혼합 요청 24개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3월중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해 수출을 요청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121개국에 이르고 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3월 코로나19 관련 소비재 수출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지난달 4865만1000달러를 수출해 전년 동기대비 117.1% 급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한

국산 진단키트 협조 요청을 한 국가는 121개국이다. 국내 진단키트 기술이 우수하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35개국이 한국산 진단키트의 수출을 요청했고,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31개국, 수출과 인도적지원 혼합 요청이 24개국, 민간 차원요청이 31개국이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단키트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고, 덴마크는 한국의 진단키트 구매 제안을 거절했다가

뒤늦게 한국산 외에 뚜렷한 대체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보건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진출 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별 요청현황과 국내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단키트 외에도 손세정제 수출이 2255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4% 급증했고, 세안용품도 2377만달러(68.9%)나 수출했다.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생활이



늘면서 가공식품 수출도 54.1%나 증가한 2억8378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월부터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 지역에서 본격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관련 소비재 수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기업 영업이익 반토막, 투자도 11조원 줄었다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46.5% 급감한 66조5천억·매출도 2.1% 감소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투자도 10%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SK, LG 등 3개 그룹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신규 투자에도 소극적이면서 투자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과 SK, LG 3개 그룹의 지난해 투자 감소액만 11조399억 원으로 전체 감소액 10조9734억 원보다 많았고, 기업별로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의 감소액이 가장 컸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대기업집단 358개 계열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부영과 한국지엠, 중흥건설은 제외)의 실적 및 투자,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332조8394억 원, 66조481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매출은 2.1%(28조8712억 원), 영업이익은 46.5%(57조7273억 원) 각각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기업들의 투자액(유무형자산 취득액)은 90조5173억 원에서 79조5439억 원으로 12.1%(10조9734억 원) 줄어 들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던 삼성과 SK, LG의 투자가 막바지에 접어든 데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 중 무형자산 취득액은 8조7535억 원에서 10조2694억 원으로 17.3%(1조5159억 원) 늘어났다. 반면 설비 및 부동산 등에 투자된 유형자산 취득액은 81조7639억 원에서 69조2745억 원으로 15.3%(12조4894억 원)나 감소했다. 그룹별로는 SK가 20조9035억 원에서 16조1200억 원으로 4조7835억 원(22.9%) 줄어 감소액이 가장 많았다. LG와 삼성도 각각 -3조3891억 원, -2조8673억 원이 줄어 감소액 2, 3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에스오일(-1조2110억 원)까지 1년 새 1조 원 이상 투자를 줄인 그룹은 총 4곳이었다. 이어 현대중공업(-9634억 원), 코오롱(-1849억 원), 아모레퍼시픽(-1823억 원), 애경(-1534억 원) 등의 투자 감소액이 1000억 원을 넘었다. 기업별로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전년 대비 -5조2949억 원이나 줄어 감소액 1위를 차지했다. LG디스플레이(-3조3296억 원), 삼성전자(-2조1712억 원), S-Oil(-1조211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LG이노텍(-7493억 원), 삼성SDI(-4932억 원), 현대삼호중공업(-4237억 원), 현대미포조선(-3962억 원), LG전자(-3804억 원), 기아자동차(-3135억 원)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지난해 투자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LG유플러스로 1조6168억 원에서 2조5628억 원으로 9460억 원(58.5%) 증가했다. 이어 GS칼텍스(5718억 원, 85.4%), KT(4567억 원, 17.5%), LG화학(4276억 원, 16.3%), SK에너지(3932억 원, 81.8%), CJ ENM(3656억 원, 198.7%), 현대모비스(3566억 원, 112.2%), 포스코(2999억 원, 17.3%), 대한해운(2387억 원, 145.2%), 포스코케미칼(2065억 원, 197.8%) 등이 증가액 톱10에 올랐다.

모든 업종에 유급휴직 수당 90% 지원

모든 업종의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이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령안은 휴업수당 25% 자부담에 여전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지난 25일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간다. 이로써 유급휴직을 결정한 우선지원기업 사업주의 휴업수당 자부담률은 10%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했다면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달(휴업·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지난해 27일 기준 2만2360곳에 달한다. 지난해 지원 사업장 1514곳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포트넘 앤 메이슨 홍차로 봄을 느끼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포트넘 앤 메이슨 매장에서 모델들이 봄 한정 홍차와 비스킷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봄을 맞아 포트넘 앤 메이슨의 올 봄 한정 상품 '셀레브레이션 블렌드 티'와 비스킷을 선보인다.

코로나로 중국서 한국 인삼 '인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3월 중화권을 대상으로 총 60건의 긴급 판촉행사를 실시한 결과 인삼과 유제품의 수출액이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2월 4주차 대(對)중국 인삼, 유제품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3%, 7.7% 줄었다. 이에 aT는 김치, 유제품 등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은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해 긴급 판촉을 실시했다. 아울러 인삼은 건강전문백화점을, 유아용 식품은 영유아전문점을 대상으로 특별기획전을 추진했다. 그 결과 3월 4주차 인삼과 유제품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8%, 16% 증가했다.

기아차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 '기아 디벨로퍼스' 출시

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 확대. 현대차그룹이 기아자동차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 '기아 디벨로퍼스(KIA Developers)'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아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 '현대 디벨로퍼스'를 운영해왔다. 이번에 기아 디벨로퍼스가 출범해 미래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아 디벨로퍼스는 기아 커넥티드카로부터 수집한 운행 및 제원 정보,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의 데이터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식으로 가공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API는 응용프로그램이 다른 응용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수단을 말한다. 모든 데이터 공유의 목적은 고객 가치 제공에 있고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커넥티드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아 디벨로퍼스 홈페이지에 가입해 데이터의 사용처와 목적을 등록하면 승인을 거쳐 API를 사용할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제휴사는 차량과 연계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및 상품을 쉽게 만들고 기아차 고객들은 보다 고도화된 커넥티드카 서비스 및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 디벨로퍼스는 우선 제휴사 4곳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누적주행거리를 바탕으로 매일 보험료가 계산되는 후불제형 자동차 보험(캐롯손해보

코로나19에 글로벌 車산업 위기

연이은 해외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국내 완성차 브랜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어음 인수 지원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수가 반겨주고 있는 덕에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부품조달에 차질을 빚으면 국내 공장도 줄줄이 멈출 우려가 커서다. 각 완성차 메이커들이 유동성 악화에 대비해 임금 지불 유예나 삭감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구촌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와 부품업체 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어음 사안을 조사한 결과 자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전 계열사에 유동성 확보 지시를 내린 상태다. 기아차는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 수조원가량의 현금성 자산 추가 마련 계획을 내놓는 등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운전자분을 포함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단골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연이은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타격이 컸다. 현대·기아차는 미·중 등 주요 공장이 멈췄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이 생산차질 문제를 겪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글로벌 부품조달에 차질을 빚으면 그나마 버티던 국내 공장도 휴업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협력업체 피해로 이어지는데 주요 부품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이미 최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산업협회는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개별기업 자금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는 △긴급 운영자금 지원 △기업어음 인수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개발소비세 납부 유예 및 감면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 확대 △P-CBO(회사채 담보보증권) 시행시 기 단축 등이 거론된다. 또 △기존 대출 상환 및 이자 유예(1년) △기업 심사 신속평가제도 도입 △산업·업종별 심사평가제도 개선 △자동차 취득세 70% 감면 △노후차 세제 지원 확대 △개발소비세 70% 감면 △6개월 연장 △자동차 구매액 소득공제 인정(10%) 등 부양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생산차질과 수요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중소기업체들의 매출이 우려된다"며 "공공기관 구매력을 집중해 글로벌 수요 급감을 내수가 대체해줄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